

제 1 교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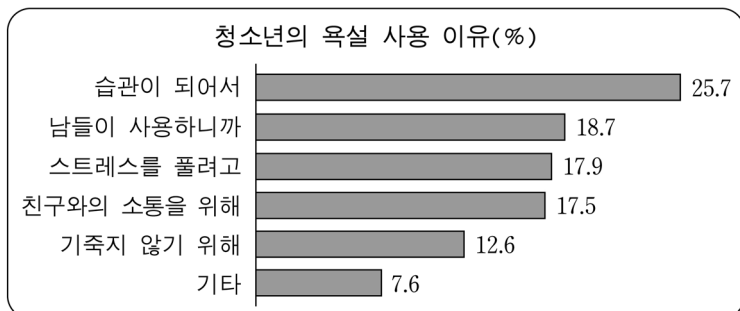
국어 영역(A형)

홀수형

[1~2]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이 한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먼저 녹음 자료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어떠십니까? 우리들, 정말 욕 많이 하죠?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이들 접하셨겠지만 실제로 한 조사에 의하면 일상적인 언어생활 중에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7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왜 욕을 할까요? (잠시 생각할 시간을 줌.) 여러 이유를 떠올리셨을 텐데요.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죠.



보시다시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저는 바로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욕을 해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스트레스 때문에 욕을 하게 되지요. 욕설을 사용하는 청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예를 들어 건전한 여가 활동의 여건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더라도, 애초에 욕을 몰랐다면 어떨까요? (청중의 대답을 듣고) 그렇습니다. 아마 욕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상,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자는 것과 욕설 습득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방안이 효과를 얻으려면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께 고운 말 칭찬 릴레이 제도를 제안합니다. 우리 스스로 고운 말 사용을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전체, 더 나아가 청소년 문화 전체에까지 퍼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1. 다음은 위 발표를 위한 사전 계획이다. 발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발표 유형

정보 전달을 바탕으로 한 설득적 말하기①

2. 청중 분석

- 대상: 학급 친구들
- 사전 지식: 청소년의 욕설 사용에 대한 언론 보도 내용을 접했을 것임.
- 특성: 절반 정도는 욕설 사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욕설도 나름대로 순기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절반 정도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②

3. 발표 전략

- 녹음 자료와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발표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함.③
- 청중과의 상호 작용을 위해 질문의 형식을 활용함.④
- 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함.⑤

2. 위 발표에 대한 학생들의 상호 평가 과정에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제기한 질문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발표자께서 제시한 통계 자료의 출처를 제시한다면 신뢰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 ② 욕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특별히 스트레스에 주목한 까닭을 설명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 ③ 여가 활동의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것만으로는 좀 막연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은 있을까요?
- ④ 청소년의 욕설 사용 문제를 해결할 책임을 청소년에게만 돌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 ⑤ 욕설 습득 경로를 차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경로부터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요?

3. 다음 대화에 나타난 ‘은영’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지호: 너 표정이 굳어 보이는데, 괜찮니?
 은영: 그러게 말이야. 난 발표하려면 꼭 이래. 지난번에도 너무 긴장해서 완전히 망쳤는데.
 지호: 맘 편하게 먹어. 다 외울 정도로 준비 많이 했잖아.
 은영: 그러게. 왜 나만 이렇게 긴장하는지 모르겠다. 다른 애들은 잘만 하는 것 같은데.
 지호: 너같이 활발한 애가 이러니까 의외다.
 은영: 나도 이상해. 이번 발표를 잘하면 곧 있을 반장 선거에도 도움이 될 텐데.
 지호: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해 봐. 몸도 좀 풀고.
 은영: 그럴까? 암튼 발표 직전의 이 불안감, 정말 싫어. 발표 내내 이러면 안 되는데…….

- ① 지금의 느낌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여기면 역효과를 가져올 뿐이야. 오히려 누구나 겪는 자연스런 감정으로 받아들이.
- ② 남들 앞에서 하는 발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 무엇보다도 발표를 완벽하게 해야겠다는 각오가 필요해.
- ③ 즉흥적인 대처 능력만 믿으면 안 돼. 충분한 연습과 준비를 통해 발표 내용을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돼.
- ④ 과거의 실수를 잊으면 안 돼. 한시라도 과거의 경험을 잊지 말고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자.
- ⑤ 발표를 회피하려는 것은 좋지 않아. 발표는 네 자신을 부각할 좋은 기회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

[4~5] 다음은 민수와 삼촌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수: 삼촌, 진로에 대한 조언 고맙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삼촌을 찾아올 걸 그랬어요. 이메일로만 여쭙 보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니 훨씬 좋은데요. ㉠ 궁금한 걸 바로 여쭙 보고 답도 들을 수 있어서요.

삼촌: 그래, 오늘 얘기 도움이 좀 됐니?

민수: 그럼요. 지난번 대학에 다니는 선배에게 비슷한 얘길 들었을 땐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 만화가인 삼촌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훨씬 분명해졌어요.

삼촌: 그래,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이구나. 강바람이 참 좋구나. 좀 더 걸을까?

민수: 네, 좋아요. 상쾌하고 마음도 후련해지네요. ㉢ 좀 전 복잡한 지하철에선 진로 얘길 하기가 거북했는데, 이렇게 탁 트인 강변에 오니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해 주신 말씀이 이해도 잘 되고요.

삼촌: 응, 그래. 그런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너만 할 때 고민이 생기면 생각도 할 겸 회수권도 아낄 겸 일부러 여기까지 걸어오곤 했지.

민수: ㉣ 회수권이요? 회수권이 뭐죠?

삼촌: 아, 너희 또래 모르겠구나. 학생들이 쓰는 버스 승차권을 그땐 그렇게 말했지.

민수: 아, 네. 그때 삼촌도 저처럼 진로 문제로 걱정이 많으셨던 거예요?

삼촌: 응, 그랬었지. 너처럼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갈등이 많았지.

민수: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말인데요, 사실은…….

삼촌: 괜찮아.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민수: 사실 전 아버지를 많이 존경하는데 이 문제로 요즘 좀 서먹해졌어요. 자꾸 피하게 되고…….

삼촌: 응,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버지가 달가워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지?

민수: 네, 맞아요. 제가 아버지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삼촌: 전혀 그렇지 않아. 삼촌도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네 심정 잘 알아. 그런데 너처럼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민수: 글썄요. ㉤ 친한 애들은 많은데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아예 그런 애긴 안 꺼내요.

삼촌: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그동안 많이 답답했겠구나.

4. 위 대화에서 ㉠~㉤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3점]

- ① ㉠에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상호 작용에 기여하는 구두 언어의 특성을 알 수 있다.
- ② ㉡에서 말하는 이의 전문성이 전달 내용의 신뢰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③ ㉢에서 공간적 상황이 메시지 전달과 수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에서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가 들은 내용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에서 참여자 사이의 지위 차이가 화제 선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5. 위 대화를 바탕으로 한 ‘학습 활동’의 결과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은 ‘공감하며 듣기’의 방법이다. ‘삼촌’이 사용한 표현 중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것을 찾아, 그 기능을 정리해 보자.

활동 결과

- ㉠ **감정, 처지에 동조해 주기**
 “여기 오니 옛날 생각이 나네.”: 상대방과 공유하는 추억을 떠올리게 해 일체감을 나타냄. ……………①
- ㉡ **관심을 기울이며 격려해 주기**
 “망설이지 말고 말해 보렴.”: 상대방이 말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북돋워 줌. ……………②
- ㉢ **듣고 이해한 내용 확인하기**
 “그러니까 네 말은 ~말이지?”: 들은 내용을 정리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했음을 보여 줌. ……………③
- ㉣ **비판을 하지 않고 지지해 주기**
 “전혀 그렇지 않아.”: 상대방의 입장을 옹호해 줌. ……………④
- ㉤ **비언어적 표현 활용하기**
 고개를 끄덕이는 행동: 상대방의 말에 호응을 보임. ……………⑤

6. 작문 상황을 바꾸어 글을 쓰는 과제를 수행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를 읽고, 작성할 글의 내용을 <조건>에 따라 구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신문

문화재를 훼손하는 담쟁이

전통 건축물에 고풍스런 미관을 더하기 위해 심어 온 담쟁이가 최근 제거되고 있다. 담쟁이는 전통 건축 양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문화재를 훼손하는 유해 식물이기 때문이다. 수천 장의 잎이 건물을 뒤덮는 담쟁이는 줄기가 서로 얽히고설켜 벽면을 따라 위로 10m 이상 자란다. 석조 문화재에 담쟁이가 무성하면 습기가 많아져 돌의 부식이 빨라지고 돌 틈으로 줄기가 뻗어 들어가 원형이 훼손된다. 또한, 담쟁이는 잔뿌리가 1cm만 남아도 몇 년 뒤 다시 자라 제거하기가 쉽지 않다.

- <조 건>

 -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어 새로운 주제를 설정할 것.
 - 예상 독자를 명시적으로 밝히고, 글의 목적을 바꿀 것.
 - 신문기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활용할 것.

- 담쟁이는 문화재를 훼손하는 유해 식물이라는 점을 활용하면,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전해야 함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미관만 고려하여 심은 담쟁이가 건축물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성과만 중시하는 사회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담쟁이와 한국 전통 건축이 조화를 이룬다는 점을 활용하면, 새로 전학 온 친구에게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담쟁이가 질긴 생명력으로 돌 틈에도 뿌리를 내린다는 점을 활용하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친구에게 끊임없이 노력하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 건물에 유해한 담쟁이가 도시 공해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면, 공부에 방해되는 텔레비전 시청도 적절히 하면 교양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설득하는 글을 쓸 수 있겠어.

[7~8] 다음은 교지에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한 계획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글쓰기 계획

- 현상: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참여도가 낮음.
- 문제의식: 관심이 없어서일까, 방법을 몰라서일까?
- 조사 내용: 기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생들의 기부 참여 유형
- 조사 결과: 기부 활동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높음.
학생들이 참여하는 기부 유형은 두세 가지로 한정되어 있음.
- 결과 분석: 인식과 참여의 괴리는 기부 유형에 대한 학생들의 정보 부족 때문임.
- 서술 방향:

㉠

7. ‘글쓰기 계획’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양한 기부 유형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학생들에게 기부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킨다.
 - 기부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을 지적하고, 기부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환기한다.
 - 학생들의 실제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특정 기부 유형에 대한 개인적 선호를 제시한다.
 - 학생들이 생각은 있지만 기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의식과 실천의 합일을 촉구한다.
 - 기부 참여도가 낮은 것은 학생들이 다양한 기부 유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임을 밝히고, 구체적인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8. ‘글쓰기 계획’과 <조건>을 함께 고려하여 글을 쓸 때, 글의 시작 부분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현상’과 ‘문제의식’을 반영할 것.
 - 효과적인 문제 제기를 위해 설의법을 사용할 것.

- 어떤 학생들이 활발하게 기부 활동을 하고 있을까? 기부 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례를 통해 기부 활동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알아보자.
- 우리 학교 학생들은 기부 활동에 얼마나 참여하고 있을까? 주변 친구들을 보면 별 생각 없이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는 현실이다.
- 요즘 학생들은 여러 가지 활동으로 바쁘다. 그런데 우리는 바쁜 생활을 핑계로 남의 아픔에 대해서는 눈 감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 우리 학교 학생들의 기부 참여가 저조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학생들을 탓하기보다는 우선 원인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 여유가 있어야만 기부를 하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자투리 시간을 내서 기부 활동에 참여한다.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과제 다음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써 보자.



과제 수행 기록 나의 글쓰기에 대하여

오늘 작문 과제는 ‘그림에 담긴 의미를 글로 표현하기’였다. 처음에는 왼쪽에 서 있는 두 사람, 당황한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키와 몸무게의 상관성에 관한 그래프 등 그림의 요소만을 나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그림 속 상황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아서, 중심 내용을 정하여 그림의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였다. 그런 후에 과제를 완성하였다.

학생의 글

성급한 일반화의 위험성

어떤 연구원이 사람의 키와 몸무게가 반드시 정비례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는 키와 몸무게가 비례한다고 한다. 그에 따르면 키가 클수록 필연적으로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키가 작을수록 몸무게가 적게 나간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키가 작고 뚱뚱한 사람과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 이 ㉡ 학자를 찾아왔다. ㉢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다. 연구원은 두 사람을 보는 순간 ㉣ 생각다 못해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키와 몸무게에 관한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 오히려 충분한 사례를 검토하지 않고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하다.

9. ‘과제 수행 기록’에 비추어 볼 때, 학생이 글을 쓰는 과정에서 활용한 주요 전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예상 독자의 수준에 맞는 어휘를 사용한다.
- ②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정한다.
- ③ 글의 목적을 고려하여 다양한 수사법을 활용한다.
- ④ 대상의 특징이나 모습을 공간적 순서에 따라 제시한다.
- ⑤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하여 글감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앞 문장과 의미가 중복되므로 삭제한다.
- ② ㉡은 하나의 글 안에서 지칭을 다르게 쓰고 있으므로 ‘연구원’으로 통일한다.
- ③ ㉢은 통일성을 깨뜨리는 문장이므로 삭제한다.
- ④ ㉣은 문장 내에서 ‘당황하다’와 의미상 어울리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은 앞뒤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지 못하므로 ‘그런데’로 바꾼다.

11.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table border="1"> <tr> <th colspan="4">눈</th> </tr> <tr> <th>길게 발음할 때</th> <th>짧게 발음할 때</th> <th colspan="2"></th> </tr> <tr> <td>눈이 평평 내린다.</td> <td>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d colspan="2"></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12.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13.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분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을】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손뼉을 치다/피아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
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을】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① ‘치다’와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
의어겠군.
- ② ‘치다’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²’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²’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밭으로 잔가지를 쳐 냈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14.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 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
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
시간이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①	(귀가한 후 누나에게) 동생: ㉠ 아, 목마르다. 누나: 자, 물 여기 있어.
②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선생님: ㉡ 창문이 열렸네. 학생: 네, 닫을게요.
③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행인 A: ㉢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④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언니: ㉣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 동생: 알았어. 내 옷 입을게.
⑤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제자: 선생님, ㉤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그래, 잘 마실게.

15.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
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호: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
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
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
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
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지기: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 하는 접사 ○ -장이: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
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원전 323년 사망한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역사상 유례없을 정도의 짧은 기간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그의 과감함과 용맹 그리고 요절은 이미 고대에 그에 대한 여러 전설을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대 저술가들이 모두 그에게 호의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는 1~2세기에 활동한 세 역사가들의 저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세 역사가인 ㉠아리아노스, ㉡플루타르코스, ㉢쿠르티우스 중에서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그를 호의적으로 평가한 편이고, 쿠르티우스는 비판적이었다. 그러나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 사이에도 약간의 차이는 있다. 아리아노스는 알렉산드로스가 명백하게 잘못된 경우에도 상대방 역시 잘못이 있다고 하여 책임 소재를 분산시킬 만큼 그에 대해 호의적이었다. 하지만 플루타르코스는 알렉산드로스를 영웅으로 그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판적인 묘사를 조금씩 삽입하여 반감을 약간씩 내비친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의 천품은 좋으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나서는 자만과 포악이 검양을 능가하게 되었다고 비판한다.

이런 세 작가들의 입장 차이는 그들이 속한 역사적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중 아리아노스와 플루타르코스는 당시 로마의 속주였던 그리스 출신이다. 그러나 전자는 로마 제국의 고위직에 올랐던 반면, 후자는 고향에서 신관으로 일했기에 정치와는 무관했다. 그들은 모두 알렉산드로스가 마케도니아·그리스 연합군을 이끌고, 과거 그리스를 침공했던 페르시아를 정복했다는 면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지역이 과거 마케도니아에 반기를 들었다가 진압 당했던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평가에 내재하는 반감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쿠르티우스는 로마의 귀족이고 원로원 의원이었다. 그가 알렉산드로스에 대해 아리아노스와 대조적인 평가를 한 데에는 시대적 배경이 있다. 쿠르티우스가 활동한 1세기는 로마 제정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고, 황제는 ‘제1시민’이라는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공화정을 가장하고 있었다. 공화정을 주도했던 원로원이 유명무실해져 가는 상황에서 쿠르티우스는 알렉산드로스가 절대 권력을 행사한 데 대해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한 세기가 더 지나 아리아노스가 활동할 때가 되면 제정은 확립되었고, 그는 속주 출신이라는 한계 때문에라도 지배자에 대해 충성의 자세를 보여야 했다. 그가 쓴 작품은 결국 황제에게 바치는 충성의 맹세였던 것이다.

16. 위 글에 나타난 인물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플루타르코스는 태생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치적 의도에서 책을 썼다.
- ② 아리아노스와 쿠르티우스는 로마 제정 시대에 활동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 ③ 아리아노스는 로마의 공직자였기에 알렉산드로스의 정복에 대해 위협을 느꼈다.
- ④ 플루타르코스와 쿠르티우스는 다 같이 로마의 속주 출신이라는 동질감을 지녔다.
- ⑤ 알렉산드로스는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설의 소재이자 찬미의 대상이었다.

17. 위 글의 글쓴이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논지로 알맞은 것은?

- ① 역사가는 당대의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한다.
- ② 역사가는 서술 대상과 거리를 두고 냉엄하게 판단한다.
- ③ 역사가는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해 대상을 철저히 조사한다.
- ④ 역사가의 역사 해석은 개인적 가치관과 시대적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⑤ 역사가의 역사 서술 목적은 교훈을 주고 미래를 대비하게 하는 것이다.

18. ㉠~㉢이 서술한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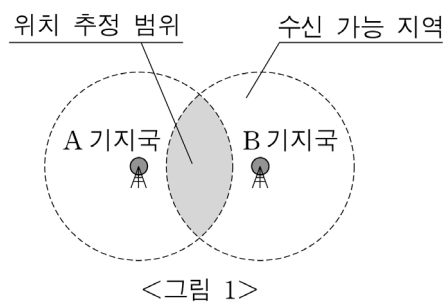
- (가) 페르시아의 수도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는 욕망을 억제하지 않게 되었다. 그가 예전에 가졌던 자제력과 금욕은 타락하여 거만과 방탕으로 변했다. 그리고 신적 권위를 내세우는 페르시아 왕을 흉내 내기 시작했다.
- (나) 식사 때의 알렉산드로스는 다른 어떤 왕보다 인자하고 명랑했지만 전쟁 이야기만 나오면 듣는 사람이 난처해질 만큼 자기 자랑을 했다. 이는 천품 탓이기도 하고, 아첨꾼들에게 둘러싸여 자랐기 때문이기도 하다.
- (다) 알렉산드로스가 친구이자 생명의 은인인 클레이토스를 술자리에서의 말다툼 끝에 살해했지만, 클레이토스도 왕에게 무례했던 책임이 있다. 더구나 그 후에 곧 자신이 광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점은 칭찬할 만하다.

- | | | | |
|---|-----|-----|-----|
| | ㉠ | ㉡ | ㉢ |
| ① | (가) | (나) | (다) |
| ② | (가) | (다) | (나) |
| ③ | (나) | (다) | (가) |
| ④ | (다) | (가) | (나) |
| ⑤ | (다) | (나) | (가) |

[19~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마트폰에서 현재 위치는 GPS*를 주로 이용하여 찾아낸다. 그러나 실내와 같이 GPS를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인접 기지국을 활용하여 알아낸다. 어떤 기지국에서 스마트폰의 신호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기지국을 중심으로 하고 수신 가능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형 지역 내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 영역을 위치 추정 범위라 한다. 한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일반적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에 이른다.

그런데 만일 두 기지국에 한 스마트폰의 전파가 수신되면, 그 스마트폰은 <그림 1>의 음영 영역, 즉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이 중첩되는 지역 내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하나의 기지국을 사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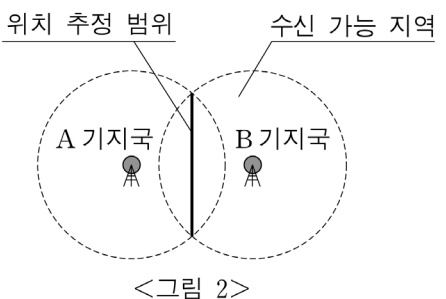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실제 통신사에서는 통화가 끊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수신 가능 지역이 서로 중첩되게 기지국을 설치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지국 수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 기지국의 배치 형태에 따라 중첩 영역이 달라지므로, 이 방법으로는 위치 추정 범위를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기는 어렵다.

전파 세기와 거리의 관계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이상적 상황에서는 전파의 세기는 송신기와 수신기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므로, 수신된 전파의 세기를 알면 기지국과 스마트폰 간의 거리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기의 습도 등 전파가 전달되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지국에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가 일정하지 않다. 그러므로 단순히 전파의 세기만으로는 정확한 거리를 추정하기가 어렵다.

전파 전달 환경이 같다면, 특정 시간에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 세기가 거리에 따라 변화하는 비율은 동일하다. 그러므로 그 비율로부터 스마트폰과 각 기지국 간 거리의 비율을 알아낼 수 있다. ㉠ 이 방법은 전파 수신 여부만을 이용할 때보다 위치 추정 범위를 더욱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두 기지국에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동일하다면, <그림 2>와 같이 스마트폰은 수신 가능 지역이 겹치는 영역 내에서 두 기지국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에 위치한다.



이 지점들을 연결한 선이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된다.

이론적으로 기지국이 세 개인 경우, 각 기지국에서 수신한 스마트폰 전파의 비율들과 그에 대응하는 각 기지국과의 상대적 거리의 비율이 같아지는 지점은 한 점이다. 이 점이 스마트폰의 정확한 위치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지국과 주변 건물의 배치 등의 요인 때문에 수십 미터 정도 오차가 나타난다.

* GPS: 위성을 이용한 위치 추적 시스템.

1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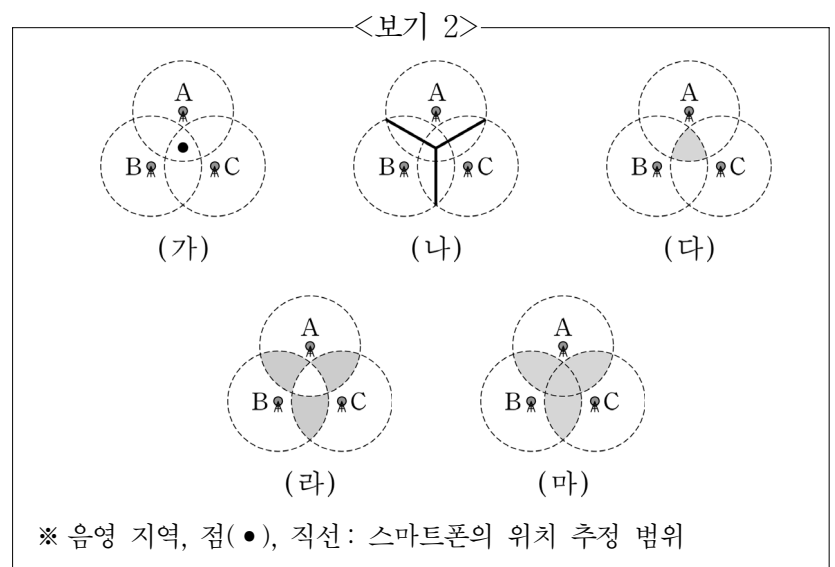
- ① 한 기지국의 전파 수신 여부로 추정된 스마트폰 위치 범위는 그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과 같다.
- ② 특정 기지국 주변의 건물 배치에 따라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가 변한다.
- ③ 스마트폰과 기지국 사이의 거리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와 정비례한다.
- ④ 대기의 습도는 수신되는 전파의 세기에 영향을 준다.
- ⑤ GPS 위성의 전파는 건물 내부까지 도달하기 어렵다.

20.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추론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 ① 두 기지국의 수신 가능 지역의 중첩이 없다면 기지국 사이를 이동할 때 일시적으로 통화가 끊어진다.
- ② 한 스마트폰의 신호가 두 기지국에서 동시에 수신된다면 두 기지국 사이의 중첩되는 수신 가능 영역이 존재한다.
- ③ 두 기지국에서 수신된 전파의 세기가 다르다면 그 스마트폰은 전파의 세기가 크게 측정된 기지국 쪽에 가깝게 위치한다.
- ④ 기지국의 수신 가능 범위가 일정할 때 전파를 수신한 두 기지국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위치 추정 범위는 넓어진다.
- ⑤ 한 스마트폰의 신호를 수신한 여러 기지국들의 수신 가능 영역 간 중첩 영역이 좁을수록 위치 추정의 정밀도가 높아진다.

21. <보기 1>의 상황에서, ㉠을 이용하여 추정된 스마트폰의 위치를 <보기 2>에서 바르게 찾은 것은? [3점]

<보기 1>
방해물이 없는 평지에서 A, B, C 3개의 기지국이 한 변의 길이가 1km인 정삼각형의 꼭짓점에 위치하고 있다. 각 기지국의 수신 가능 거리는 700m로 동일하다. 특정 시각에 한 스마트폰에서 송신된 신호가 각 기지국에서 동일한 세기로 수신되었다.



- ※ 음영 지역, 점(●), 직선: 스마트폰의 위치 추정 범위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22~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조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릴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신발이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면,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유추 해석이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하면서도, 흙 묻은 맨발로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반대 해석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22. 위 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하나의 사례를 매개로 하여 여러 가지 개념들이 비교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 ②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에 대해 현실적 사례를 들어가며 논증하였다.
- ③ 문제를 상정하고 그와 유사한 상황들을 분석하여 대안을 모색하였다.
- ④ 단계적 추론을 통해 타당한 해결책에 이르도록 논의를 전개하였다.
- ⑤ 다양한 원리를 제시하고 평가하여 종합적 결론을 도출하였다.

23. 위 글에서 설명된 법률 해석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법률은 해석을 통해 구체적 사안에 적용된다.
- ② 죄형법정주의 때문에 형법에서는 유추 해석을 금지한다.
- ③ 법률이 갖는 목적이나 성격은 그 법조문의 해석에 영향을 끼친다.
- ④ 법률과 현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간극을 법률의 해석으로 메우려 한다.
- ⑤ 법률의 해석에서는 논리적 맥락보다 직관적 통찰을 통해 타당한 의미를 찾아낸다.

24. ‘반대 해석’과 관련 있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보 기>—

- ㄱ. 민섭: ‘대문 앞에 자동차를 세우지 마시오.’라고 쓰여 있네. 담 쪽에 주차해야겠다.
- ㄴ. 유현: 길이 좁아서 써 놓은 것 같은데 담 쪽도 곤란한 거 아냐?
- ㄷ. 민섭: 도로 폭은 충분해. 그보다는 대문을 드나드는 데 불편해서 붙였다고 봐야 돼.
- ㄹ. 유현: 그런데 대문 앞을 오토바이가 막고 있네. 자동차가 아니라서 세워 두었구나.
- ㅁ. 민섭: 이 경우에는 오토바이도 자동차라고 생각해야지.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ㅁ ⑤ ㄹ, ㅁ

[25~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빛과 열을 공급해 준다. 이런 막대한 에너지를 태양은 어떻게 계속 내놓을 수 있을까?

16세기 이전까지는 태양을 포함한 별들이 지구상의 물질을 이루는 네 가지 원소와 다른, 불변의 ‘제5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밝기가 변하는 신성(新星)*이 별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별이 불변이라는 통념은 무너지게 되었다. 또한 태양의 흑점 활동이 관측되면서 태양 역시 불덩어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 후 섭씨 5,500도로 가열된 물체에서 노랗게 보이는 빛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유사한 빛을 내는 태양의 온도도 비슷할 것이라고 추측하게 되었다.

19세기에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확립되면서 ㉡새로운 에너지 공급이 없다면 태양의 온도가 점차 낮아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가 훨씬 높았어야 했고, 지구의 바다가 펄펄 끓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태양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주는 에너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

20세기 초에 방사능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나 태양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태양에는 우라늄 등의 방사능 물질 대신 수소와 헬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방사능 물질의 붕괴에서 나오는 핵분열 에너지가 태양의 에너지원은 아니었던 것이다.

㉢현재 태양의 에너지원은 수소 원자핵 네 개가 헬륨 원자핵 하나로 융합하는 과정의 질량 결손으로 인해 생기는 핵융합 에너지로 알려져 있다. 태양은 엄청난 양의 수소 기체가 중력에 의해 뭉쳐진 것으로, 그 중심으로 갈수록 밀도와 압력, 온도가 증가한다. 태양에서의 핵융합은 천만 도 이상의 온도를 ㉣유지하는 중심부에서만 일어난다. ㉤높은 온도에서만 원자핵들이 높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며, 그 결과로 원자핵들 사이의 반발력을 극복하고 융합되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로 근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태양빛이 핵융합을 통해 나온다는 사실은 태양으로부터 온 중성미자가 관측됨으로써 더 확실해졌다.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 핵융합 에너지가 늘어나면 그 에너지로 인한 압력으로 수소를 밖으로 밀어내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낮추게 된다. ㉥이렇게 온도가 낮아지면 방출되는 핵융합 에너지가 줄어들며, 그 결과 압력이 낮아져서 수소가 중심부로 들어오게 되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를 다시 높인다. 이렇듯 태양 내부에서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태양이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빛을 낼 수 있게 된다. 태양은 이미 50억 년간 빛을 냈고, 앞으로도 50억 년 이상 더 빛날 것이다.

* 신성: 갑자기 환히 빛났다가 얼마 후 다시 희미해지는 별.

25. 위 글을 읽으면서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하였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질문 1. 태양빛의 근원은 무엇일까?
 ○ 제5 원소설: 신성 관찰로 인정됨.①
 ○ 불덩어리설: 흑점의 관찰로 제안됨.②

질문 2. 태양이 계속 식어 왔다면 과거에는 어땠을까?
 ○ 수천 년 전 아주 뜨거움: 과거 지구의 기후와 부합하지 않음.③

질문 3. 태양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올까?
 ○ 핵분열 에너지설: 스펙트럼 분석 결과 부정됨.④
 ○ 핵융합 에너지설: 태양 중성미자의 관측으로 인정됨.⑤

26. ㉠~㉦이 참이라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뜨거운 물체는 온도에 따라 주로 내는 빛의 색이 다르다.
- ② ㉡: 열을 내는 물체는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온도가 내려간다.
- ③ ㉢: 물체의 질량은 다른 에너지로 변환이 가능하다.
- ④ ㉣: 융합 전까지 원자핵들 사이에는 반발력이 존재한다.
- ⑤ ㉤: 온도가 일정하면 기체의 압력은 부피에 반비례한다.

27. 위 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보기>의 ‘핵융합 장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태양의 원리를 적용한 대체 에너지 기술은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만들어 수소 원자핵들이 빠른 속도로 자주 충돌할 수 있도록 밀도를 높여 주면 가능하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원자핵을 초고온 상태로 지속시킬 수 있는 ‘핵융합 장치’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①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원자핵들이 핵융합을 할 수 있겠군.
- ② 지구에서 구하기 쉬운 방사능 물질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군.
- ③ 초고온 상태를 유지하려면 태양 중력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힘이 필요하겠군.
- ④ 태양 표면과 같은 환경을 마련해 주려면 엄청난 양의 수소를 핵분열시켜야겠군.
- ⑤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력과 핵융합 반응의 평형 상태를 깨뜨리는 것이 관건이겠군.

28. ㉡, ㉢와 관련하여 <보기>의 사례가 될 수 없는 것은?

<보 기>
 국어의 어휘 중에는 ‘유지하다-유지되다’처럼 명사인 ‘유지’가 ‘하다’와 결합하면 타동사, ‘되다’와 결합하면 자동사가 되어 구별되는 용법으로 쓰이는 예가 많다.

① 관통(貫通) ② 보존(保存) ③ 완공(完工)
 ④ 발열(發熱) ⑤ 개편(改編)

[29~30] 다음은 읽기 과제를 수행하는 두 학생의 사고 과정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예지 : 『신비한 뇌』, 『화학의 힘』, 『떠나자, 여행』. 이 중 한 권을 후배들에게 소개하는 과제인데, 어떻게 할까? 처음 접하는 책들이니까 일단 훑어보자. (세 권의 목차와 내용을 살펴본 후) 뇌나 화학에 대한 책은 후배들이 읽기 힘든 수준이니, 여행에 대한 책으로 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읽을까? 책을 소개해야 하니까 다루고 있는 여행지와 제공하는 정보에 주목해야겠고, 책을 소개하는 이유도 메모하면서 읽어야겠다. (잠시 책을 읽은 후) 모든 여행지가 같은 양식으로 소개되고 있네. 여행지가 100곳인데 정보량도 많아. 시간 문제나 과제의 성격을 생각해 이 책을 다 읽을 필요는 없겠다. 지금부터는 후배들이 관심을 가질 여행지를 선별해서 읽어야겠다. (한동안 책을 읽은 후) 이제 잘 진행되니, 책 소개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다.

승수 :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 권 중 하나를 읽고 독후감을 쓰는 과제였지. 보자. 첫 번째 책 제목이 『위험한 사회』. 재밌어 보이네. 이 책으로 결정. (첫 장을 읽으며) ‘전자 판옵티콘’이 여러 번 나오네. 무슨 말이지? 이외에도 모르는 단어가 많군. 선생님께서 모르는 단어는 글에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라고 하셨으니까, 더 읽어 보자. (잠시 책을 읽은 후) “판옵티콘의 통제는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판옵티콘’이 또 나왔네. 뜻은 아직 모르겠고, ‘비대칭적 시선’은 뭘까? ‘체화’도 모르겠고, 갑자기 건축 이야기네.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니 문제네. 왜 이렇게 안 읽히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 ㉠ 어떻게 해야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문제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

29. ‘예지’와 ‘승수’의 독서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지’는 후배들의 읽기 수준과 책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읽을 책을 선택하였다.
- ② ‘승수’는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하였다.
- ③ ‘예지’와 ‘승수’는 모두 책을 읽어 나가면서 읽은 내용을 재구성하였다.
- ④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어 나가면서 자신의 읽기 방법을 조정하였다.
- ⑤ ‘예지’는 ‘승수’와 달리 책을 읽기 전에 과제를 분석하고 읽기 계획을 세웠다.

30. ㉠에 대한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추론으로 글의 의미를 구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면 어휘나 배경 지식을 보완할 필요가 있어.
- ② 읽기는 저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활동이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비판해 볼 필요가 있어.
- ③ 책에 제시된 세부 정보들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면 글의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 ④ 책의 뒷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을지 예측해 보면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야.
- ⑤ 읽은 내용을 내면화하면 의미를 정교화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31~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루는 유 한림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석 낭중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내 남쪽 지방이 고향인 동청이란 자를 천거했다. 동청이란 사람은 일찍 부모를 여의고 세상에 떠돌며 무뢰배와 어울려 주책잡기를 일삼았다. 그나마 있던 재산을 탕진하고 생계가 막연하여 객지로 나와 대갓집에 빌붙어 살았다. 잘생긴 얼굴에 말주변과 글재주가 있으니 이름난 선비들이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받아들여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그 자제들을 유혹하여 나쁜 짓을 같이 하는 바람에 결국 쫓겨나게 되었다. 그러다가 석 낭중의 집까지 오게 되었고, 낭중도 동청의 정체를 알고는 괴로워하던 중이었다. 낭중이 마침 외직으로 부임하는 차에 동청의 허물을 감추고 유 한림에게 소개한 것이다. 유 한림은 마침 마땅한 사람을 구하던 차였다. 동청을 만나 보니 말하는 것이 흐르는 물과 같고 풍모도 반듯하여 혼쾌히 서사(書士)*의 직분을 맡겼다. 동청은 재주가 있고 눈치가 빨라 매사를 한림의 뜻대로 챙기니 신임이 두터웠다. 이를 본 사씨가 한림에게 말했다. “첩이 듣기로 동청은 정직하지 않아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다 하옵니다. 그러니 머무르게 하지 말고 빨리 내보내소서.” 유 한림이 말했다. “동청을 머물게 하는 것은 단지 글을 구함이지 벼를 삼으려는 것이 아니요, 무슨 상관이 있겠소?” 사씨가 말했다. ㉠ “비록 벼는 아니지만 좋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있으면 자연히 잘못된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집안에 두어 법도가 잘못될까 걱정하는 것이옵니다.” 한림이 말했다. “부인의 말씀이 옳지만 남을 비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소. 혹 동청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을 받았을 수 있으니 두고 보면 자연히 알리라. 부인은 걱정 말고 집안 하인들이나 잘 다스려 법도가 어지럽지 않게 하오.”

한편 교씨는 사씨가 동청을 배척하는 것을 알고 남매와 함께 동청과 은밀히 만나면서 계책을 의논하였다.

자고로 여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못할 일이 없는 법이라. 십량은 교씨를 위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이후로는 한림이 교씨에게 폭 빠져 종전의 모습을 잃었다. 사씨는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별 수 없어 그냥 두고 보았다. 교씨는 사씨를 시기하여 한림에게 여러 번 비방을 했지만 여의치 못하자 조바심이 들어 다시 십량을 불러 물었다.

“나의 이러한 재주와 용모로 남의 첩이 되어 장차 앞길이 어떻게 될지 기약할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사씨를 없애면 은혜를 후하게 갚으리라.”

십량이 한참 만에 말했다.

“이 일이 참으로 난처하니 다른 묘책이 없는지라. 장주 공자가 병들기를 기다려 여차여차 하옵소서. 다급하니 서둘러야 합니다.”

교씨가 이 말을 듣고 매우 기뻐하면서 십량이 만들어 준 방자*에 쓰이는 요망한 물건들을 사방에 두루 묻고 남매를 불러 음모의 절차를 자세히 알려 주었다. 은밀하게 일을 진행하니 집안에서는 세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다.

몇 달이 지나 가을이 되었다. 장주가 감기에 걸려 때때로 토하며 놀라는 증세를 보였다. 십량이 말한 계책을 실행할 때가 온 것이다. 장주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림이 백자당에 오자 교씨가 울며 말했다.

“장주가 갑자기 병에 걸려 크게 앓으니 이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옵니다. 증세를 보니 예사 병이 아니라 분명 집안 누군가가 장주를 저주하여 생긴 병인가 하나이다.”

한림이 교씨를 위로하고 나서 장주의 병세를 보니 증세가 가볍지 않았다. 매우 걱정하면서 약을 지어 먹였지만 별 차도가 없었다. 한림은 걱정하고 교씨는 곁에서 즐기게 울었다. 한림은 교씨의 유혹에 빠져 충명이 점점 흐려져 사태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니 어찌 안타깝지 아니하랴.

- 김만중, 『사씨남정기』 -

* 서사: 문서를 정리하거나 필사하는 일을 하는 사람.
* 방자: 남이 못되거나 재앙을 받도록 귀신에게 빌어 저주하는 술법.

31.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한 집안을 배경으로 하여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주관적 판단이나 감정을 노출하고 있다.
- ③ 시간의 역전적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의 선악 대결과 삼각 관계를 통해 흥미를 유발하고 있다.
- ⑤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단서를 제시하여 갈등의 심화를 예고하고 있다.

32. [A]의 인물 제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체험의 나열을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② 인물의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비유적 진술을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작중 인물의 시각을 통해 인물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삶의 내력을 드러내고 있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문학 작품은 시대적 이념이나 당대 사회상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당대의 세태와 관습뿐 아니라 인간관계나 사회적 위계, 지배적 이념 등에 대한 가치관을 다각도로 확인할 수 있다.

- ① ‘석 낭중’이 ‘유 한림’에게 ‘동청’을 소개한 정황으로 보아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당시의 세태를 확인할 수 있군.
- ② ‘사씨’가 ‘동청’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도덕성과 평판을 중시하는 당시 가치관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유 한림’이 ‘사씨’를 대하는 태도로 보아 남녀의 역할과 위계에 대한 사회적 관념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교씨’가 신분 불안을 느낀다며 악행을 모의하는 것으로 보아 축첩 관행이라는 사회적 문제가 환기되는군.
- ⑤ ‘교씨’가 요망한 물건들을 음모에 이용하는 것으로 보아 주술에 대한 사회적 믿음이 존재했군.

34. ㉠에서 ‘사씨’가 ‘한림’에게 하려는 말과 그 뜻이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뱀새가 황새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고 하니 그와 어울리지 마세요.
- ②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고 하니 악인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 ③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하니 좋은 말로 거절하세요.
- ④ ‘동냥치가 동냥치 꺼린다’고 하니 그를 받아들이 수는 없어요.
- ⑤ ‘가재는 게 편’이라고 하니 ‘석 낭중’을 보아 그를 믿으세요.

[35~3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우는 것이 빠꾸긴가 푸른 것이 버들숲인가

이어라 이어라

어촌(漁村) 두어 집이 내* 속에 나락들락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말깡고 깊은 소(沼)에 온갖 고기 뛰노누나

<춘(春) 4>

연잎에 밥 싸 두고 반찬일랑 장만 마라

달 들어라 달 들어라

청약립(靑簫笠)은 써 있노라 녹사의(綠蓑衣) 가져오나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무심(無心)한 백구(白鷗)는 내 쫓는가 제 쫓는가

<하(夏) 2>

㉢ 수국(水國)에 가을이 드니 고기마다 살져 있다

달 들어라 달 들어라

만경징파(萬頃澄波)*에 실컷 용여(容與)하자*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인간(人間)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추(秋) 2>

㉣ 물가에 외로운 솔 혼자 어이 씩씩하고

배 매어라 배 매어라

머흔* 구름 한(恨)치 마라 세상(世上)을 가리운다

지국충 지국충 어사와

㉤ 파랑성(波浪聲)*을 염(厭)치* 마라 진훤(塵喧)*을 막는도다

<동(冬) 8>

- 윤선도,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

* 내: 바닷가에 자주 나타나는 안개와 같은 현상.

* 만경징파: 넓게 펼쳐진 맑은 물결.

* 용여하자: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 있게 놀자.

* 머흔: 험하고 사나운.

* 파랑성: 물결 소리.

* 염치: 싫어하지.

* 진훤: 속세의 시끄러움.

3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음을 사용하여 흥취를 북돋우고 있다.
- ②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을 이상적 세계로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3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 ‘빠꾸기’의 울음소리는 봄의 애상감을, ‘버들숲’의 푸르름은 깊어가는 봄을 보여 준다.
- ② ㉡: 세속에 ‘무심’한 ‘백구’를 동경하여 화자와 대상 사이에 거리감이 있음을 보여 준다.
- ③ ㉢: 살 오른 ‘고기’는 자연의 풍성함과 화자의 여유롭고 넉넉한 정신세계를 보여 준다.
- ④ ㉣: 외로운 ‘솔’을 씩씩하다고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화자의 내면적 갈등을 보여 준다.
- ⑤ ㉤: ‘파랑성’과 ‘진훤’을 대비하여 속세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여 준다.

[37~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서 나온 것이 아홉 시쯤, 그래서 김 반장도 가셋방에 놓은 **흑백텔레비전**으로 저녁 뉴스를 시청하느라고 내가 나온 것도 모르고 있었다. 장가들면 색시가 컬러텔레비전을 해올 것 이므로 굳이 바꿀 필요 없다고 고물 텔레비전으로 견디어 내 는 김 반장의 등허리를 흘깃 쳐다보고 나는 신발까지 벗고 의 자 위에 냉큼 올라앉았다. 잠이 오면 탁자에 엎드려 한숨 졸고 있어 볼 생각으로 나는 가물가물 감기는 눈을 비비며 이리저 리 몸을 뒤척이고 있었다. 거리는 그날따라 유난히 한산했고 지물포나 사진판도 일찌감치 아크릴 간판에 불을 꺼 둔 채였 다. 우리정육점은 휴일인지 셔터까지 내려져 있었다. 그 옆의 서울미용실은 경자 언니가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아홉 시만 되면 어김없이 불을 꺼 버린 채였다. 형제슈퍼에서 공단 쪽으 로 난 길은 공터가 드문드문 박혀 있어서 원래 칠흑같이 어두 웠다. 한 블록쯤 가야 세탁소가 내비치는 불빛이 쩌끔 새어 나 올 뿐이고 포장도 안 된 울퉁불퉁한 소방 도로 옆으로는 자갈 이며 벽돌 따위가 쌓여 있었다.

[A] 바로 그때 공단 쪽으로 가는 어두운 길에서 뭔가 **비명** 소리도 같고 욕지기를 참는 안간힘 같기도 한 소리가 들려 왔다. 아니, 그때 나는 비몽사몽 졸음 속에서 헤매고 있었 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소리를 들은 것은 아니었다. 이제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분명 잠에 흠뻑 취해 있었음이 분명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생각된 것은 꿈 속에까지 쫓아와 악다구니를 벌이고 있는 엄마와 아버지의 모 습을 보고 있었던 탓인지도 몰랐다. 하여간 허공을 가르는 비명 소리가 꿈속이었거나 생시였거나 간에 들려 왔던 것은 사실이 었다. 움찔 놀라며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누군가가 어둠을 뚫고 뛰쳐나와 필사적으로 가게를 향해 덮쳐 오는 중이었다. 그리고 그 뒤엔 뒷에서 뛰쳐나온 노루새끼를 붙잡으러 온 것이 확실한 짙은 사내 둘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쫓아오고 있었다.

(중략)

가게 앞에 서서, 찹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이마의 땀을 훔치고 있는 사내는 두 개의 웃저고리를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다. 그도 당연히 러닝셔츠 바람이었지만 소매도 달린, 점잖은 흰색이었으므로 빨간 셔츠에 비해 훨씬 온순하게 보여졌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나는 가게 옆구리의 섯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새 사내의 발길에 차여 버린 도망자가 바닥에 엎어져 있었고 김 반장이 만약을 위해 사내 주변의 맥주 박스를 방 안으로 저 나르면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김 형, 김 형 …… 도와주세요.”

쓰러진 남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온 것은 그 순간이었다. 그와 동시에 빨간 셔츠의 사내가 다시 쓰러진 자의 등허리를 발로 짹 짹 찌어 눌렀다.

“이 새끼, 아는 사이요? 그러면 당신도 한번 맛 좀 볼 텐가?”

맥주병을 거꾸로 쳐들고 빨간 셔츠가 소리 질렀다. 김 반장의 얼굴이 대번에 하얗게 질려 버렸다.

“무, 무슨 소리요? 난 몰라요! 상관없는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으니까 나가서들 하시오.”

그때 바닥에 쓰러져 버둥거리던 남자가 간신히 몸을 비틀고 일어섰다. 코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슬쩍 드러나 보였는데 세상에, 그는 몽달 씨임이 분명하였다. 그리고 보니 빛바랜 바지와 물들인 군용 점퍼 밑에 노상 끼입고 다니던 우중충한 남방셔츠가 틀림없는 몽달 씨였다. 아까는 위낙 눈 깜짝할 사이에 가게 안으로 뛰어들었기 때문에 얼굴을 볼 겨를이 없었다.

“이 짜식, 어디로 토끼는 거야! 너 같은 놈은 좀 맞아야 돼.”

흰 이를 드러내며 빨간 셔츠가 으르렁거렸다. 순간 몽달 씨가 텔레비전이 왕왕거리고 있는 가렛방을 향해 튀었다. 방은 따로이 바깥쪽으로 난 출입구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몽달 씨보다 더 빠른 동작으로 방문을 가로막아 버린 사람이 있었다. 바로 김 반장이었다.

“나가요! 어서들 나가요! 싸우든가 말든가 장사 망치지 말고 어서 나가요!”

빨간 셔츠가 몽달 씨의 목덜미를 확 낚아챘다. 개처럼 질질 끌려나오는 몽달 씨를 보더니 밖에 있던 흰 러닝셔츠가 찌익, 이빨 새로 침을 뱉어 냈다. 두 사람 다 술기운이 별정계 오른, 번들거리는 눈자위가 징그러웠다. 나는 재빨리 불빛이 닿지 않는 구석으로 몸을 피했다. 무섭고 또 무서웠다. 저렇게 질질 끌려가는 몽달 씨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도무지 가슴이 떨려 숨도 크게 쉬지 못할 지경이었는데도 김 반장은 어지러진 가게를 치우면서 밖을 내다보지도 않았다.

- 양귀자, 『원미동 시인』 -

37. [A]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지적 시점을 유지하여 서술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 ② 자기 경험을 직접 서술하여 사건의 전모를 드러낸다.
- ③ 관찰자 시점으로 전환하여 상황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 ④ 제삼자의 시점에서 사건에 대해 치우침 없는 판단을 제시한다.
- ⑤ 현재 ‘나’의 시각으로 과거의 사건을 서술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38. ‘김 반장’에 대한 평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세태에 휩쓸리지 않는 주체적 인물이다.
- ② 사태를 공정하게 판단하는 중립적 인물이다.
- ③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인물이다.
- ④ 상황을 모면하는 데 급급한 이해타산적 인물이다.
- ⑤ 모두의 입장을 공평하게 수용하는 개방적 인물이다.

39.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양귀자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세상과의 불화 속에서 고통을 겪고 상처를 입은 채, 시대에 뒤쳐진 도시의 변두리로 내몰려 살아간다. 작가는 그들의 소외된 삶을 연민의 시선으로 포착하여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상흔을 어루만진다. 이러한 경향은 『원미동 시인』에서도 나타나는데, 현실과의 불화로 소외된 ‘몽달 씨’가 비정한 현실을 견디는 모습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점이 특징적이다.

- ① ‘흑백텔레비전’ 등의 소재는 시대에 뒤쳐진 도시 변두리의 현실을 시사한다.
- ② 공단 주변의 황량한 공간 구도는 도시 변두리의 소외된 공간 구도를 형상한다.
- ③ 한산한 동네 풍광은 고통을 인내하며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정경을 드러낸다.
- ④ 어둠 속에서 들려온 ‘비명 소리’는 소외된 사람들의 상흔에 상응하는 설정이다.
- ⑤ 인물이 폭행당하는 장면은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우의적으로 제시한 장면에 해당한다.

[40~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씨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촉게 하리
 ㉤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 정희성,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

4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다리리’, ‘촉게 하리’ 등의 서술어로 화자의 의지나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다면’, ‘~끝에’ 등의 반복적 사용으로 운율의 효과를 얻고 있다.
- ③ 반어적 어조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불완전한 문장으로 작품을 마무리하여 여운을 주고 있다.
- ⑤ 수미상관의 방법으로 작품 전체에 안정감을 주고 있다.

41. <보기>의 맥락에서 위 글을 해석한다고 할 때,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 (가) 서로 사랑하면서도 맺어지지 못하는 사연으로 고민하는 연인들이 많다.
 (나)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는 분단 시대의 극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① ‘꿈’의 경우 (가)와 (나) 모두에서 현실 도피의 의도를 발견하기 쉽다.
- ② ‘슬픔’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민족적 한의 정서에 연결되기 쉽다.
- ③ ‘그리움’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역사적 전망에 연결되기 쉽다.
- ④ ‘겨울’의 경우 (나)보다는 (가)에서 억압적 현실을 발견하기 쉽다.
- ⑤ ‘사랑’의 경우 (가)보다는 (나)에서 개인적 욕망에 연결되기 쉽다.

42. ㉠~㉤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은 화자의 긍정적 지향점을, ㉡은 화자가 처한 부정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어.
- ② ㉢과 ㉣은 화자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시련의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
- ③ ㉣과 ㉤은 ‘내’가 ‘당신’과 정서적으로 연대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어.
- ④ ㉣에서 표현된 행위가 ㉤에 나타난 화자의 내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어.
- ⑤ ㉤에서 표현된 행위는 ㉠을 완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어.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30대 중반의 정원은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진사이다. 이제는 죽음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던 어느 날, 정원은 단속 사진을 인화하러 온 주차 단속원 다림을 만나면서 그녀에게 서서히 끌리게 된다.

S# 56. 사진관 촬영실

사진기의 까만 프레임 내부에 다시 네모난 공간을 만들고 그 안에 거꾸로 상이 맺혀 있는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 화면 밖에서 정원의 소리가 들린다.

정원 얼굴을 조금 왼쪽으로, 조금만 더, 턱 좀 내리고…….

그때마다 다림은 조금씩 움직인다.

정원 살짝 웃으면 더 예쁘겠는데.

다림, 애써 웃으려 하지만 잘 안 되고 어색하다. 그래도 잠시 동안 화면을 보고 웃는데 정원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누른다.

S# 57. 상가 거리 (밤)

화장품 가게 안의 다림. 화장품을 고르고 있다. 이것저것을 신중하게 고르다 주인에게 값을 묻고는 선택을 망설인다. 끝내는 아무것도 사지를 못하고 화장품 가게를 나온다. 길가에 늘 어선 옷가게들의 쇼윈도를 보면서 걷는 다림. 신사복을 파는 가게 앞에서 발길을 멈춘다. ㉡ 남자 옷을 바라다보는 다림. 그녀는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다.

S# 78. 사진관 안 (저녁)

다림 문을 열고 들어오면 텅 빈 사진관. 소파에 앉는 다림.
㉠ 곧 일어서서 테이블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기 시작한다. 정원이 비닐 봉투를 들고 들어온다. 다림을 보고 놀라는 정원. 다림이는 평소의 옷차림과는 다른 모습이다.

정원 화장했네?
다림 왜, 보기 싫어요?
정원 아니.
다림 …….

잠시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흐른다.

(중략)

다림 내가 얘기 안 했었나? ○○월드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정원 …….
다림 도널드 인형 쓰고 애들하고 놀아주는 애예요.
정원 그거 굉장히 더울 텐데 …….
다림 ○○월드 가면 개가 공짜로 표 얻어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
정원 근데?
다림 그냥 그렇다구요. 언제 한번 가긴 해야 되는데 시간이 나야 말이죠.

정원과 다림 잠시 말이 없다.

S# 79. 놀이 공원 - 롤러코스터 (낮)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정원과 다림. 정원과 다림의 아우성치는 모습.
㉡ 정원의 시점으로 달리는 롤러코스터에서 보이는 풍경. 심하게 흔들리며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이 고속 촬영으로 흔들림과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며 화면도 어두워진다.

S# 80. 벤치 (낮)

정원과 다림은 하드를 먹으며 말없이 앉아 있다. ㉢ 사이를 두고 앉은 둘의 모습은 어색해 보인다.

S# 81. 학교 운동장 (낮)

멀리 텅 빈 운동장을 가로질러 뛰어가는 정원과 다림의 모습이 보인다. 운동장을 달리고 있는 다림과 정원. 정원은 얼마를 못 가서 자리에 멈춰 서 가쁜 숨을 고르고 있다. 정원을 뒤에 두고 달리는 다림. 혼자서 운동장을 달리는 다림. 운동장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정원. 다림, 정원 앞으로 숨을 헐떡이며 다가온다.

- 오승욱·허진호·신동환 각본, 『8월의 크리스마스』 -

43.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사진이라는 매개물이 두 인물의 관계 형성의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 ② 연속된 장면들을 인과적 관계로 배열하여 갈등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사진관, 상가 등 일상적 공간을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배치하여 그에 따른 인물의 내면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행위나 표정 등에 집중하게 하기 위하여 대사에 비해 지시문의 비중을 높이고 있다.

44.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면 속 ‘다림’의 모습과 화면 밖 ‘정원’의 목소리의 병치를 통해 인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제시된다.
- ② ㉡: ‘다림’의 행동 묘사를 통해 인물 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이 암시된다.
- ③ ㉢: ‘다림’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정원’을 향한 친밀감이 형성되고 있음이 나타난다.
- ④ ㉣: ‘정원’의 시선에 포착된 풍경을 통해 인물의 혼란스러운 심리가 드러난다.
- ⑤ ㉤: ‘정원’과 ‘다림’의 물리적 거리를 통해 서로에 대한 감정 표현을 주저하는 인물의 태도가 드러난다.

45. S# 81을 위 글에 제시된 대로 영화화한다고 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교 운동장 장면과 인물의 과거 회상 장면이 겹쳐지도록 공간을 설정한다.
- ② 활기찬 ‘다림’과 병약해 보이는 ‘정원’이 대비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한다.
- ③ 조연들이 운동장을 함께 뛰는 가운데 주인공들의 모습이 부각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다림’ 역을 맡은 배우는 흐트러짐 없이 여유 있는 모습으로 달리기를 마치도록 한다.
- ⑤ 화면 속 날씨는 ‘흐린 날’로 설정하여 두 인물의 우울한 상황이 드러나도록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

이 면은 여백입니다.